

학생 절반 학교폭력 '침묵'

“보복 두려워 목격해도 못본척”

중·고교 남녀 설문조사

광주 시내 중·고교생 60~70%가 ‘학교 폭력’을 당하거나 목격하지만,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침묵하거나 그냥 보고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이런 사실은 광주기독교청년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(단장 조명래)이 지난달 광주 시내 15개 중·고교 남녀 학생 5백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설문조사’ 결과 나타났다.

이 조사에서 남자 고교생 52.5%, 남자 중학생 67.9%, 여학생 38.4%가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현장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.

그러나 남학생의 47~54%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간다고 말했으며, 다른 학생

이 당하는 것을 본 남학생 57~60%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.

반면 여학생들은 12~23%가 그냥 보고 넘긴다고 말했다.

학생들은 그냥 넘기는 이유로 △보복이 두려다거나(남고 20%, 남중 38%) △(교사나 가족에게) 말해도 별 소용이 없다(남고 37%, 남중 20%)는 점을 꼽았다.

한편 이 중·고교생들은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경찰·학교 등의 학교 폭력 근절활동에 대해 88~94%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.

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달 셋째 주에 학생·부모와 학교·검·경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학교폭력을 뿌리뽑을 대책을 찾기로 했다.

광주/이수범 기자